특집

전환기
양돈산업의
나아갈 길

전환기의 양돈산업 정책 방향

김 정 용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1. 머리말

지금 양돈업을 포함한 우리 축산업은 가혹한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오던 축산물도 이제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안으로는 농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환경규제 강화로 종전의 양돈업 형태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양돈산업이 앞으로 점차 가속화될 개방화시대를 맞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 양돈산업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양돈업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 나아가야 하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규모, 어떤 형태로 경영되어야 하는가?

둘째, 양돈을 경영할 땅을 어떻게 확보하며, 환경문제와는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셋째, 우리 양돈업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 하위 산업들의 효율과 생산성은 어떠하며, 앞으로 이들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넷째, 양돈산물 유통실태는 어떠하며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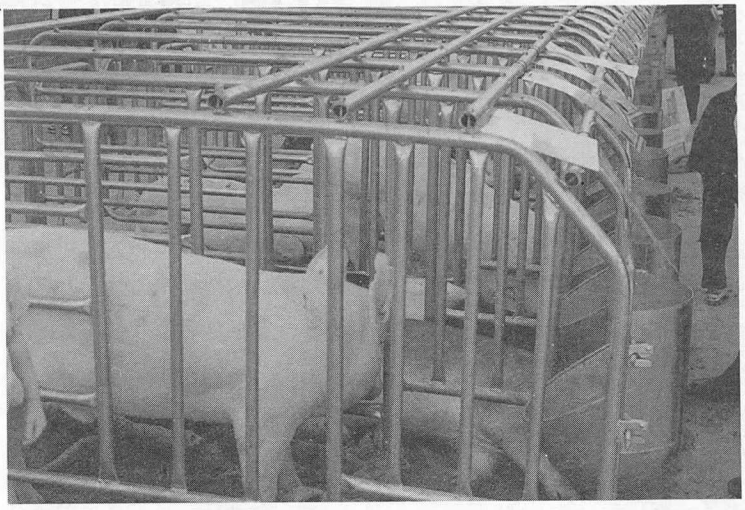
다섯째, 양돈경영에 대한 우리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특

히 어떤 부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 등이다.

2.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대한 문제점

첫째, 장래 우리 양돈업을 이끌어나갈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또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돈업은 부업양돈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규모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실정이다.

우리 양돈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부업규모를 탈피하고 가족노동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육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사육두수를 늘려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생산성이 높은 전업 양돈농가에 의해 50% 이상이 생산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업농가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우리 양돈산업을 이끌어나갈 젊은 후계자들은 현재는(양돈 2~3백두 규모) 전업규모에 약간 미달되는 규모이지만 앞으로 전업규모(500~1,000두 규모)로 사육을 늘리고 생산비도 지금보다 적어도 40%이상(국제가격대비 1.4배)을 절감할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젊은이여야 할 것이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살아나갈 길은 올바른 축산관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후를 대비하여 선진 사양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예 양돈인이 얼마나 있느냐의 여부와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전업 양돈농가를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둘째, 양돈경영을 위한 적지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이며,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양돈경영을 하려면 특별히 환경보전과 조화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축산경영의 규모화, 전업화와 더불어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축산 특히 양돈업은 농촌에서 조차 혐오산업시 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어,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업구조개선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양돈단지 조성이나 돈사의 신·개축 사업들이 주민들의 집단항

〈표 1〉 돼지 사육동향

구 분	'81 (A)	'85	'91		'92.9월 (D)	대 비		
			9월 (B)	12월 (C)		D/A	D/B	D/C
사육호수	천호 425	251	128	129	107	25	84	83
두 수 (모돈수)	천두 1,832 (336)	2,853 (433)	5,069 (688)	5,049 (729)	5,664 (739)	309 (220)	112 (107)	112 (101)
호당두수	4.3두	11.4	39.6	39.0	52.9	1,230	134	136

의 등으로 도처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과 축산업의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위하여 축산분뇨를 단순히 정화처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이를 퇴비화, 자원화하여 다시 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개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돈업을 구성하는 관련산업(sub-sector)들의 효율과 국제경쟁력은 어떠한가?

양돈산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종제품인 돼지고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양돈업을 구성하는 관련산업들이 각 단계별로 모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경쟁력은 각 단계별 하위산업 경쟁력의 총화에 의해 결정된다.

[종돈업]+[비육업]+[사료업]+[동물약품업]+[도축업]+[가공유통업]
=[돼지고기 경쟁력]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국제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40%정도 뒤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단계의 관련산업이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비능률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수입개방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선택하는데 국산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지, 수입된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지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한번의 의사결정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다. 즉 돼지고기가 생산되기까지의 6~7단계 과정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돼지고기의 품질 평가와 선택으로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순한 사육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각각 단계가 안고 있는 현재의 비능률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경쟁 이전에 치열한 국내경쟁을 통하여 비능률적인 업체들을 자연 도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양돈산물 유통체계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모순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 가격경쟁에서의 불리함을 품질경쟁으로 극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국내 양돈산물의 유통체계는 이러한 품질을 보증할 만한 제도적 장치인 도체등급제 등이 아직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값을 주고도 자기가 원하는 고급품의 축산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돼지고기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도축가공과정을 거쳐야 되며 이 과정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현대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돼지고기의 품질이 좌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로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이 분야에 헌신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투자 역시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입개방을 맞게 된다면 농민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 우수한 품질의 돼

〈표 2〉 돼지고기 가격대비('91년 기 준)

구 분	국내가격 (A)	수 입 가 격		A/B(%)
		CIF가격	중간비용 포함가격(B)	
돼지고기(kg)	3,677원	2,040	2,652	139

*제비용 포함가격 : CIF×1.30(관세 20%,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환율 : 750원/$

지고기를 생산한다 해도 수입품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양돈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유통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양돈분야 기술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우리나라 양돈기술 수준은 미국이나 덴마크, 네델란드 등 구라파의 선진국들에 비해 모든면에서 뒤떨어지며, 특히 종돈개량분야,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첨단기술분야, 사양기기분야 등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또한 농가단위에서 응용되어야 할 컴퓨터 경영기법, 자동화시설, 분뇨처리 및 환경정화분야 등 현장애로를 타개할 경영기술분야의 낙후성은 조속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 분야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지도 및 기술보급기능도 시급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축산정책의 방향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우리 양돈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업규모의 정예 양돈농가를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

정부는 2000년대 우리나라 축산은 소수정예의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에 의해 주도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예 축산농가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시책으로 전업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자금과 폐수정화시설 설치자금을 매년 1,000억~1,50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선도전업농가 육성 사업을 시작 하였는 바, 이는 개방화시대 우리 양돈업을 이끌어갈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91 농가에 150억원을 지원(전체 310농가에 420억)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원방식도 종래에는 모든 양축농가에 대해 평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의욕과 능력 있는 일정 규모이상 농가를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시설 등 Hardware중심의 부분지원 형태에서 시설·경영·기술등(Software)을 종합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코져 하며, 대상자 선발권한도 종전에 행정기관중심에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이양코자 한다.

양돈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육질을 고급화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도모하고, 계열화생산 체계를 구축시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적절한 축산입지를 확보하여 환경과 조화된 축산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간척지 등을 축산용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진흥지역내의 농지전용 및 산림활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마을내 산재된 양돈농가를 일정지역내에 단지화하고 축산분뇨의 공동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재공급구입, 공동출하로 원가 절감을 도모토록 할것이다.

셋째, 양돈업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산업의 국내경쟁 체제를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종돈, 사료, 동물약품, 도축, 가공산업 등 인·허가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참여를 확대하고 경쟁 촉진을 통하여 각 분야의 비능률 요인을 제거토록 하며, 정부는 모든 단계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게임의 규칙과 경쟁의 장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넷째, 수입개방에 품질보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돈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 품질보증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도체등급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생축유통에서 지육 및 자가상표 부착의 부분육형태 유통으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낙후된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적인 도축·가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다섯째, 양돈분야기술 향상을 위하여 안성에 『축산종합기술센타』를 설립하여 현장 애로를 타개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모든 선진축산기자재의 상설전시를 통하여 경영개선의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축산경영기술의 정보센타화하고 축종별 기술연찬회 개최의 중심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종돈개량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돼지개량 노력과 투자를 적극지원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60~70%에 달하는 무허가축사를 기확정된 무허가축사 구제방침에 따라 조속히 구제하고, 신규축사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위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축사는 농업용 시설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개방형 돈사 등은 농지내에 농용시설물로 농지전용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야 하며, 기존 무허가축사는 조속히 구제조치를 취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시설 자동화와 성력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축산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의 지원확대의 일환으로는, 주요축산물의 수입개방시에 맞추어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적용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축산에 대한 투융자 지원도 점진적인 수입개방으로 축산진흥기금의 신규 재원 조성이 부족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재정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지금 우리 농업은 국제교역의 자유화 추세속에서 개방화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 UR농산물협상의 진전등으로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도 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하루 속히 경쟁력을 갖춰 나아가는 길뿐이다.

정부는 축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양돈분야를 포함한 축산장기발전대책을 비롯한 각종 장·단기 시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세제지원 및 구조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은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양축농민 각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 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축산관련인들이 상호협조와 자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농민,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부국양돈, 나아가 우리나라 축산발전의 길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養豚